

# 과학엘리트집단의 삶과 사랑과 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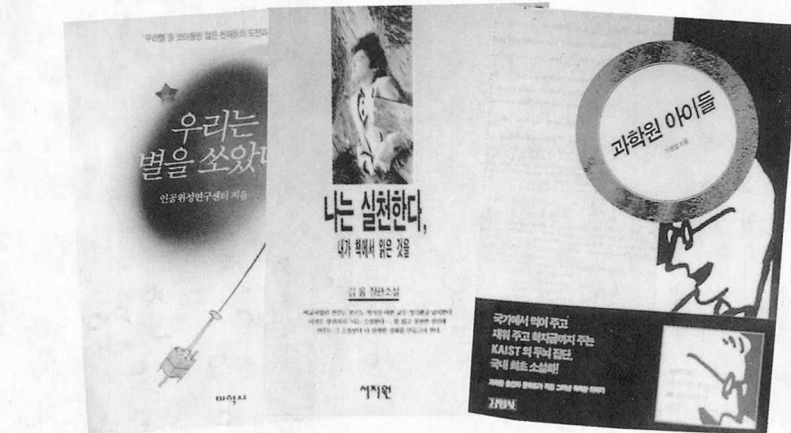
## 「우리는 별을 쏘았다」 등 '카이스트' 관련도서 세권 선보여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관련된 책 세권이 거의 같은 시기에 출판돼 서점가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학 엘리트집단인 과학원 학생들의 특색 있는 모습을 그린 세권의 책은, 「나는 실천한다, 내가 책에서 읽은 것을」(김용 지음, 서지원) 「과학원 아이들」(이영섭 지음, 김영사) 「우리는 별을 쏘았다」(인공위성연구센터 지음, 미학사)로, 이 두권의 소설과 한편의 르뽀는 과학원의 속사정과 과학원생들의 고충과 보람을 속속들이 알려주고 있어 강한 흥미를 돋우는 책들이다.

### 과학원의 특수한 환경 드러낸 소설도

먼저 소설 「과학원 이야기」는 마치 「하버드의 공부벌레들」을 연상시키는 작품으로, 과학 엘리트들이 겪는 학교생활과 그들의 우정과 사랑 등을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은 과학원 출신의 작가가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4년여에 걸쳐 쓴 것인데, 대학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던 이윤재, 박경태, 조철우가 과학원에 입학해 벽찬 공부에 시달리면서도 서로를 도우면서 진한 우정을 쌓는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가 최일남씨가 “소설의 세계와는 동떨어진 거리에 있을 법한 과학자들의 ‘오지’를 가장 비과학적인 그릇에 담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기도 한 이 소설은 과학원생들이 학위를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묘사한다.

그러나 이 작품을 통해 단순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과학원과 과학원생들의 생활을 소개해 호기심을 유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과학의 발전은 어느 특출한 천재에 의해서가



최근 출판된 한국과학기술원을 소재로 한 세권의 책.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그들의 값진 청춘을 거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과학원의 특수한 환경과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고 작가는 후기에서 적고 있다. 최고의 엘리트라는 자긍심과 그보다 더 강한 낙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눈코 뜰 새 없는 숙제와 실험의 반복 속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우정으로 승화하는 그들의 모습을 읽는 재미는 각별하다.

한편 양귀자씨의 소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을 패러디한 형식을 취한 「나는 실천한다...」는 여성문제와 작가의 체험이 뒤섞인 작품. 주인공인 석하와 현호는 고2 때 과학원에 입학한 수재들이지만, 특수한 조직 안에서 학문에만 전념하며 시대상황에는 동참할 수 없는 자신들의 입장에 환멸을 느끼고, 작가지망생과 운동권 학생으로 변신한다. 한

편 여교사였던 선주는 남성 우월주의를 상징하는 포르노 작가인 성기환 교수를 납치해, 애인인 석하와 함께 양어장 창고에 성교수를 감금하고 자신이 계획한 프로그램으로 세뇌시키는데...

이 소설은 세가지의 열개로 엮여져 있다. 제목과 같이 줄거리 자체는 주인공 선주가 「나는 소망한다...」를 읽고 그 내용을 모방한 납치극을 벌인다는 것이며, 작가는 거기에 여성문제를 주제로 내세우고 있고, 자전적 성장 과정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소설은, “수업과 시험의 팍찬 스케줄로 인해 사회 문제에는 동참할 수 없는” 과학원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들춰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앞서 소개한 두권의 소설과 달리 르뽀형식을 취한 「우리는 별을 쏘았다」는 작년 8월 10

일 남미 기아나에 위치한 쿠루 우주기지에서 우리 역사상 첫 인공위성이 된 ‘우리별 1호’를 발사했던 인공위성센터팀 젊은 과학도들의 성공담을 그린 것. 김성현씨 등 9명의 과학기술대학(이전 과기원의 학사부)생들은 인공위성의 개발과 제작으로 유명한 영국의 서리대학 위성통신과에 입학하면서 우리별 발사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 인공위성 ‘우리별’ 제작팀에 관한 르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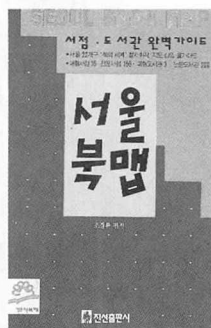
이 책은, 모두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1부에는 우리별 제작에 얽힌 에피소드와 우리별 발사 준비과정 등이 설명돼 있으며, 제2부에서는 3년간의 영국 유학기간 있었던 일과 우리별을 만든 ‘괴짜’들의 면면을 소개한다. 그리고 제3부에서는 인공위성 우리별의 구성과 우리별과의 통신, 과학기술 실험 등 인공위성에 대한 다분히 전문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세권의 책은 한결같이 갖가지 특혜를 받는 고급뇌집단으로 과학의 천재들이 모인다는 과학기술원의 진면목과 그 속에서 젊음을 불사르는 과학도들의 별난 생활과 고뇌 등을 전해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 최태원 기자

## SEOUL BOOK MAP

# 서울 북맵



진선출판사

### 책! 정보전쟁시대의 휴대품

「서울·북·맵」이 책은 말한다, 문제는 정보이고 편리함이란 것을. 책의 정보, 각종 서점·도서관에 관한한 앞서가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이 책은 고안되고 편집되었다. 집어라! 그리고 그때 그때 빨리 읽고 책의 정보전쟁에서 승리하라.

전화 720-5990, 5991  
팩시밀리 739-2129

### 서점·도서관 완벽가이드

- 1 서점가 지도  
주요 서점들의 권역별, 거리별 상세지도
- 2 대형서점 가이드  
16개 대형서점의 기본테마 및 취급도서 비교  
22개 구별 주요 신간서점 소개 및 지도 삽입 올가이드
- 3 전문서점 가이드  
4개 분야 28개 항목의 전문서점 160개 총망라
- 4 대형도서관 가이드  
2개 대형도서관 / 1개 대형 자료관의 이용데이터  
서울지역 공공도서관·대학 도서관·청소년 독서시설 일람
- 5 전문도서관 가이드  
6개 분야 46개 항목의 전문도서관(자료센터) / 200개 총망라

조경환 편저  
정가 4,500원